

편안한 청사, 쾌적한 청사, 즐거운 청사 행복한 삶의 질을 고민하고, 변화하는 정부청사관리소

정부청사를 한번이라도 찾아본 사람들은 느꼈을 것이다. 철저한 보안 속에 친절함과 배려가 느껴지고, 수많은 민원인으로 혼잡한 가운데에서도 쾌적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자칫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정부청사에서 느껴지는 이 섬세함은 바로 정부청사관리소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청사관리소.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마음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윽한 허브 향기처럼, 정부청사를 쾌적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한걸음씩 변화해 나가고 있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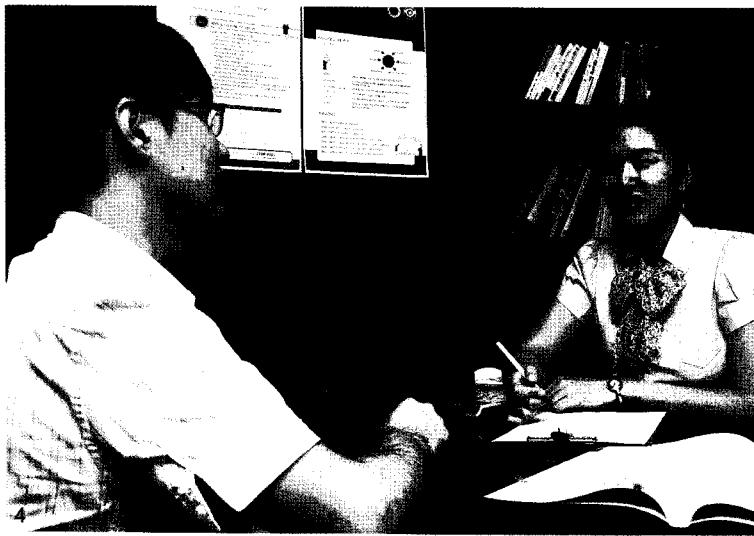
■ 최용균 차로제공 정부청사관리소 사진 뷰브 스튜디오

정부청사관리소, 국정운영의 든든한 밑거름
숲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대한 수목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쉽다. 그 아래에 이름 모를 아름다운 들꽃과 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꽃과 풀들은 숲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수목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한 거름이 되기도 한다. 정부청사관리소의 역할이 그러하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는 공무원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지원하고,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청사의 기획, 신축, 관리 업무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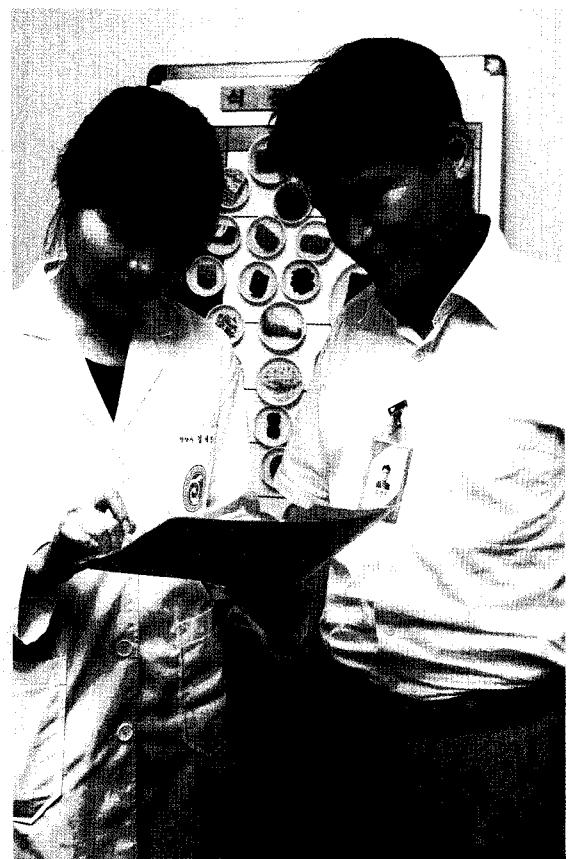
하는 곳으로 그 역사가 무려 40여년에 가깝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국정운영의 든든한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앙, 과천, 대전청사에는 23개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약 1만5천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 천 명의 민원인이 정부청사를 방문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복지 향상

정부청사관리소는 기본적인 청사 유지·관리 업무 이외에도 정



- ● 피트니스센터에서는 단순한 운동 지도뿐 아니라 스트레칭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안내데스크도 정부청사관리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 상담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민을 사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
- 건강지원센터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해준다.



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LB, Work-Life Balance)을 통해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지원센터, 상담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가 있다. 건강지원센터는 과로,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 고위험군(高危險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토클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 없이 혈액검사 등 기초의학 검사가 가능하며, 스트레스지수측정, 금연 및 영양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지원센터는 개인과 조직, 심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심리,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라이프 코칭, 재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는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땀 흘리며 운동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밀끔히 해소된다. 피트니스센터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과 지도,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운동치료 클리닉 등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09년 3월 행정안전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 성신여자대학교(운동처방실)가 맺은 3기간 업무 협약을 통해 정부

청사 '건강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후생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건강클리닉은 기존 건강지원센터와 의무실, 상담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로 고객 가치 제공

편안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청사를 만들어 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청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정부청사관리소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 문화 예술적 감성을 바탕으로 창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치유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7월 정부중앙청사의 '춤 테라피' 라인댄스 과정에 무려 180여 명의 공무원이 신청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것이 그 일례이다.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편안한 청사, 쾌적한 청사, 즐거운 청사'를 지향하는 정부청사관리소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